

변동성의 파고 넘기



BONDS

STABILITY
OPPORTUNITY
SUSTAINABLE GROWTH

BOND MARKET

GLOBAL ECONOMY

FIXED INCOME

Global Bonds Navigate a Changing Landscape

Global bond markets are showing renewed resilience conditions, as investors balance growth prospects with inflation risks. Analysts say fixed income remains a key pillar in diversified portfolios, offering both stability and income in an era of market volatility.



Fixed Income in a New Era

As markets adapt to a more complex macroeconomic backdrop, fixed income is gaining renewed attention from investors seeking stable returns.

CONTENTS

3	Summary
4	Key Chart
6	한 발 더 장전한 연준,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10	금통위, 10 월은 쉬어가도, 11 월은 다시 선택지 위로
13	투자전략: 높은 절대금리 매력과 여전한 변동성 부담
14	Issue Check: BOJ,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이어갈 전망
15	Appendix: Chart Book

Summary

한 발 더 장전한 연준,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당사는 연준이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 9월 FOMC는 향후 경제지표의 흐름에 따라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 추가 인상 시점으로는 10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연준이 10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선택이 가능.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급성과 11월 초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연준이 중간선거 직전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금통위, 10월은 쉬어가도, 11월은 다시 선택지 위로

당사는 한국은행의 최종금리(Terminal Rate) 전망을 기존 3.25%에서 3.50%로 수정. 추가 금리인상 시점은 올해 11월과 내년 1분기 각각 25bp를 예상. 10월 금통위에서는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인상의 누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11월 이후로 추가 인상을 미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9월 FOMC 전후로 정책 여건은 추가적인 긴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 먼저,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짐. 또한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재차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연준이 9월 금리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상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커짐

투자전략: 높은 절대금리 매력과 여전한 변동성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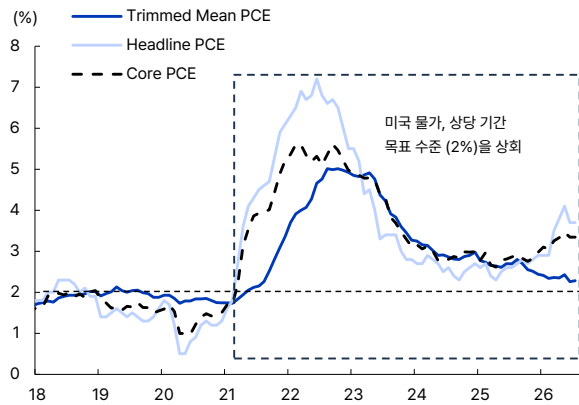
국내 채권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리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높은 절대금리 수준을 활용한 캐리(Carry)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 다만 대내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동 리스크와 수급 부담까지 이어지고 있어 채권 투자심리가 단기간 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따라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Issue Check: BOJ,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이어갈 전망

당사는 BOJ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2%) 수준에 근접하는 등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고, 엔화 약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BOJ가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 다만, 우에다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10월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 보다는 물가, 환율 흐름을 좀 더 지켜본 이후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

Key Chart

[도표 1] 미국 PCE 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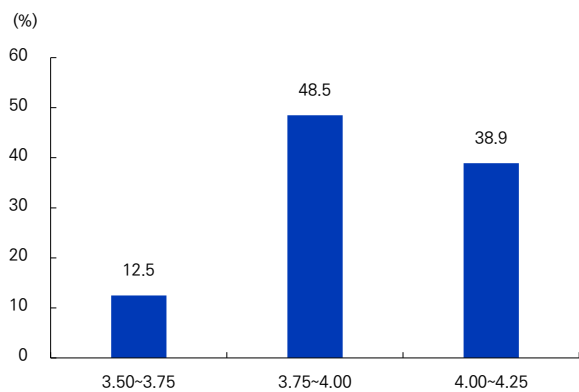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미국 상무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평균 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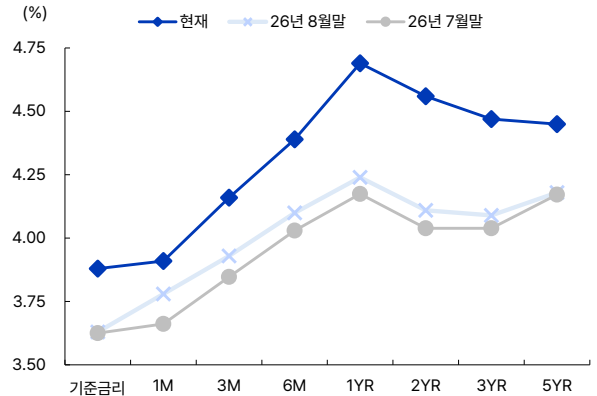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Fed Watch, 2026년 12월 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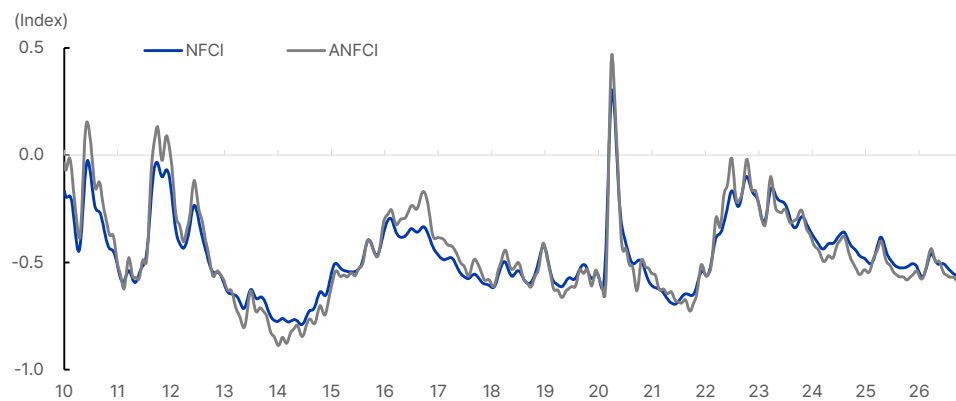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연준, 내재 정책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미국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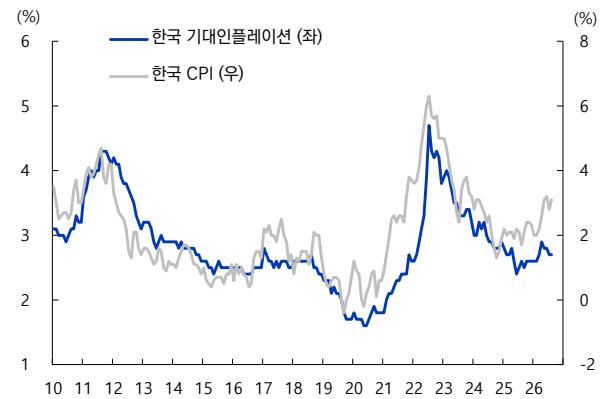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정부, 820.9 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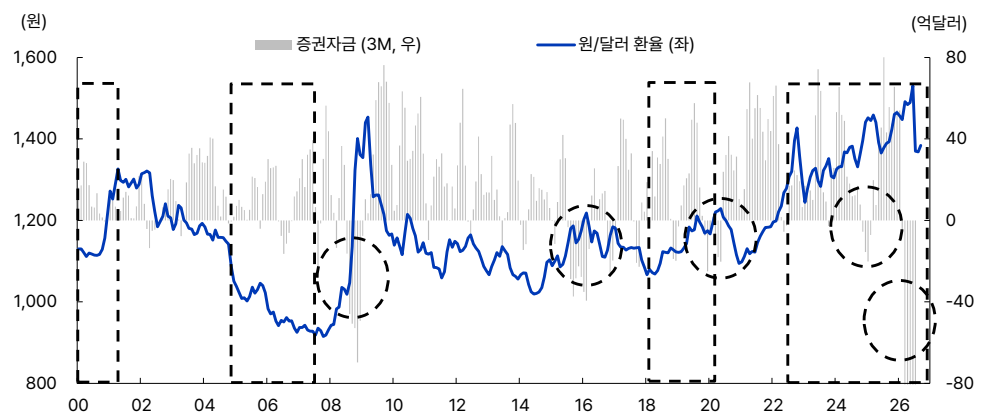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한국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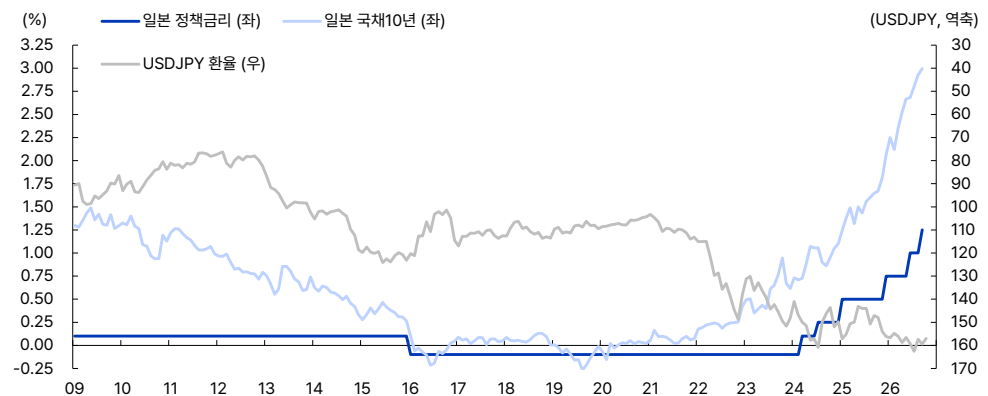
[도표 8]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박스형 점선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 원형 점선은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한 구간

[도표 9] BOJ 통화정책과 일본 국채금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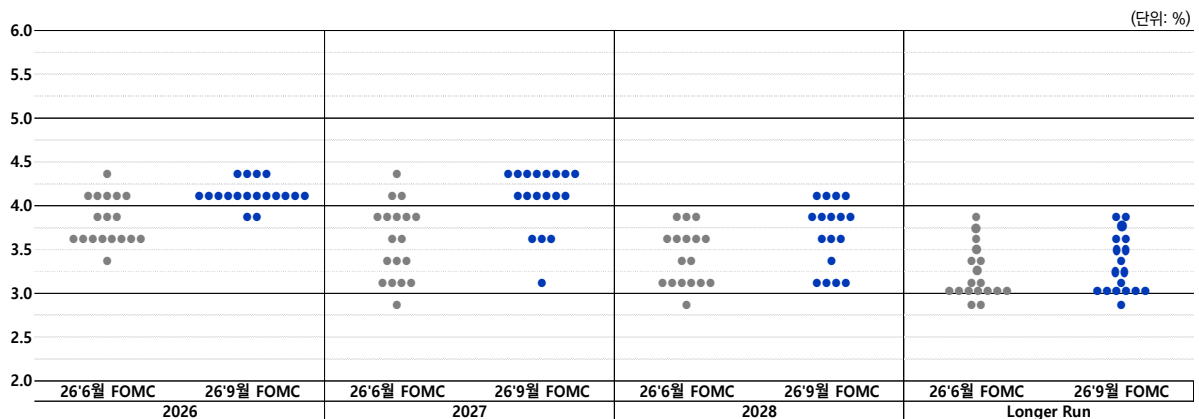
변동성의 파고 넘기

한 발 더 장전한 연준,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9월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다. 투표권을 보유한 연준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금리인상 결정에 동의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의 정책 결정은 위원회의 2% 목표에 더 시의적절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Today’s policy action will support a timelier return to the Committee’s 2 percent goal)’이라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까지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번 회의와 비교해 전반적인 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본투자 흐름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금리 점도표에서는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더불어 상당기간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2026년, 2027년 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각각 3.8%→4.1%, 3.6%→4.1%로 상향 조정됐는데, 18명의 위원 중 16명이 올해 연말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을 전망했다. 새롭게 제시된 2029년 중간값은 3.6%로, 장기금리(Longer Run) 전망치 3.2%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표 10] 2026년 6월, 2026년 9월 금리점도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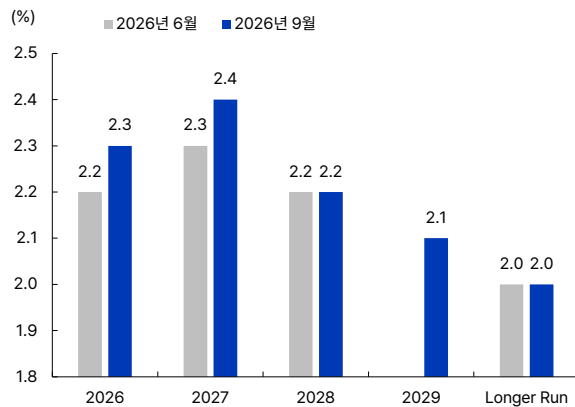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경제전망 역시 추가 긴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연준은 9월 경제전망 자료(SEP)에서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2.3%, 2.3%→2.4%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업률 전망치는 2026년~2028년까지 모두 4.1%로 하향 조정하고, 2029년 전망치도 4.1%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경기와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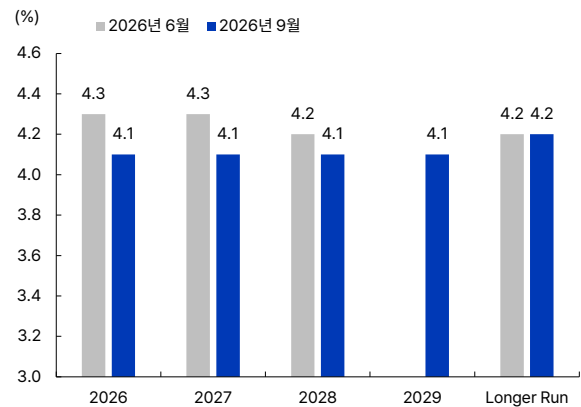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올해 Headline PCE, Core PCE 물가를 각각 3.6%→3.7%, 3.3%→3.4% 하고, 2028년도 각각 2.0%→2.1%, 2.1%→2.2%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물가가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기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연준의 판단을 보여준다.

[도표 11] 2026년 9월 SEP: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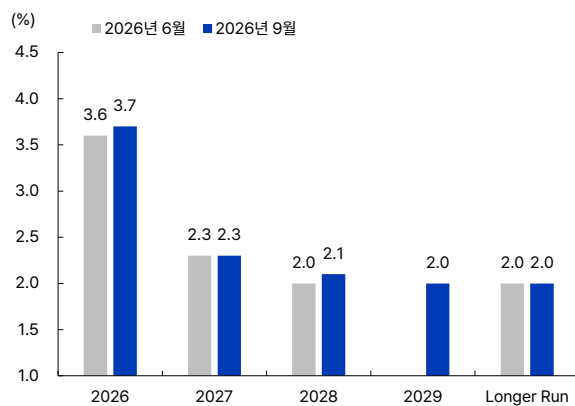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2026년 9월 SEP: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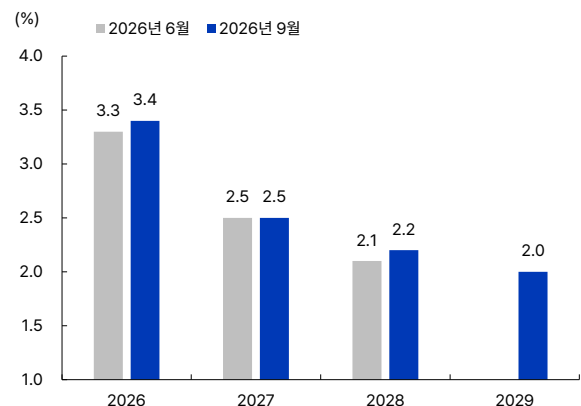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2026년 9월 SEP: PCE 물가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2026년 9월 SEP: 근원 PCE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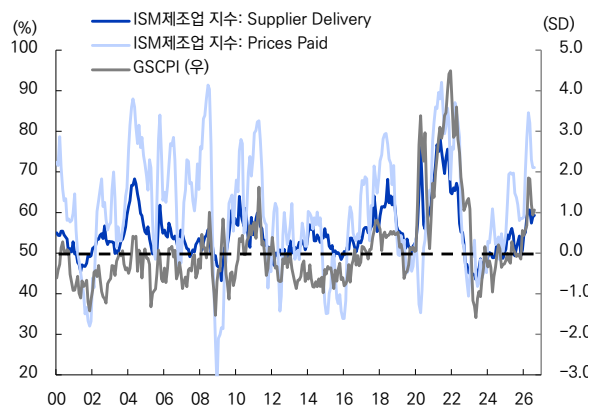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당사는 연준이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자는 당초 연준이 9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는 위시 의장이 추진 중인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관련 TF의 결과가 구체화될 때까지 추가적인 정책 조정에 신중함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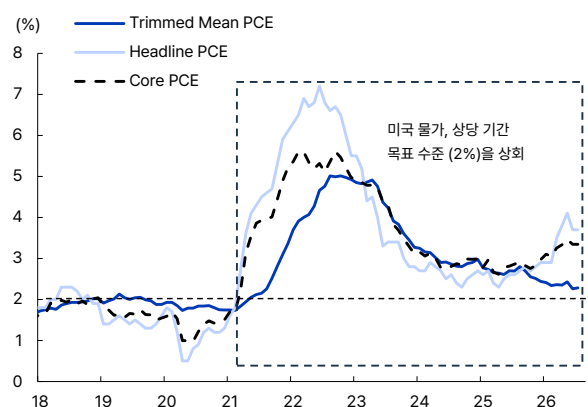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세까지 가팔라지면서, 한 차례의 금리인상만으로는 시장에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와 정책 독립성을 충분히 확인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미 기초적인 물가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충격까지 재부각되면서, 연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물론 실제 추가 인상 여부는 미 경제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펀더멘털을 감안하면 연준이 긴축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단기간 내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도표 15] 구조적 인플레이션 경계감 지속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미국 PCE 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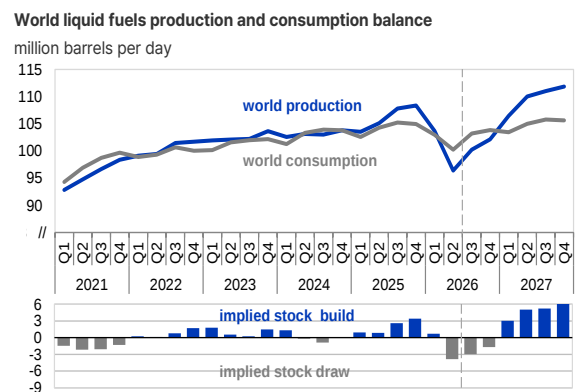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미국 상무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7] 평균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공급측면에서의 부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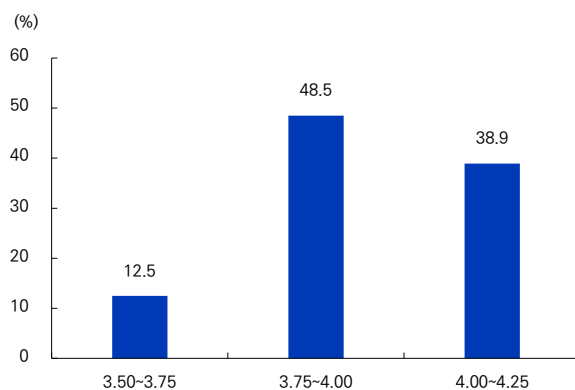


자료: EI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워시 의장은 9월 FOMC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시카고 연은의 NFCI와 ANFCI는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 머무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여건은 완화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물가 안정은 경제 성장의 근간이며, 오늘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Price stability is foundational to economic growth, and I think we took an important step today to deliver it)”고 언급하면서 물가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는 금변 인상을 일회성이 아닌 향후 경제지표의 흐름에 따라 연내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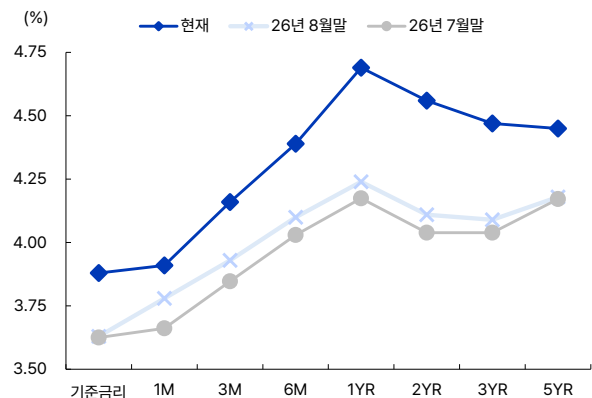
추가 인상 시점으로는 10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한다.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연준이 10월에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기업대출의 추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급성과 11월 초에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연준이 중간선거 직전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9] Fed Watch, 2026년 12월 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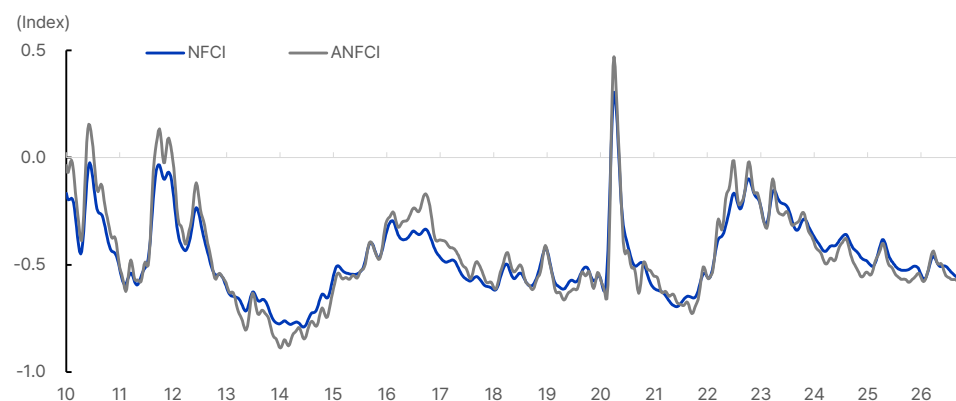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연준, 내재 정책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미국 금융여건은 여전히 완화적



자료: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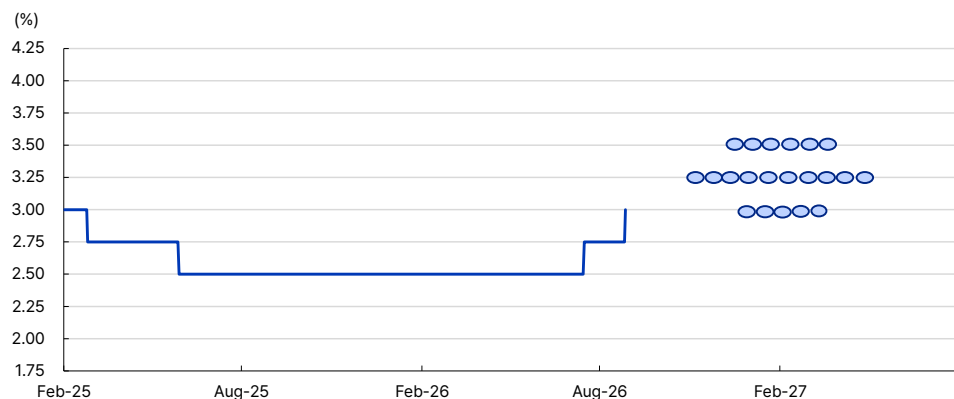
금통위, 10월은 쉬어가도, 11월은 다시 선택지 위로

당사는 한국은행의 최종금리(Terminal Rate) 전망을 기존 3.25%에서 3.50%로 수정한다.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 11월과 내년 1분기 각각 25bp를 예상한다. 10월 금통위에서는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인상의 누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11월 이후로 추가 인상을 미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금통위 당시만 하더라도 한은의 긴축 경로는 비교적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금리 점도 표는 백투백 금리인상과 성장률 전망의 큰 폭 상향에도 불구하고 향후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의 중간값이 3.25%에 머물렀으며, 전망치 상단 역시 3.50%에 그쳤다. 이를 통해 금통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한 차례를 넘어서는 추가 긴축 경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9월 FOMC 전후로 정책 여건은 추가적인 긴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먼저, 수출 호조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중동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재차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 연준이 9월 금리인상에 이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인상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도 커졌다.

[도표 22] 8월 금통위 금리점도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정부는 820.9조원(+12.8% YoY)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AI 및 차세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성 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내경제는 향후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정부지출 확대와 국내투자자 이를 보완해 견조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금통위는 그간 누적된 비용압력의 전이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동 리스크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을 재차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유가 상승이 광범위한 가격 전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도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23] 한국 수출과 세계 교역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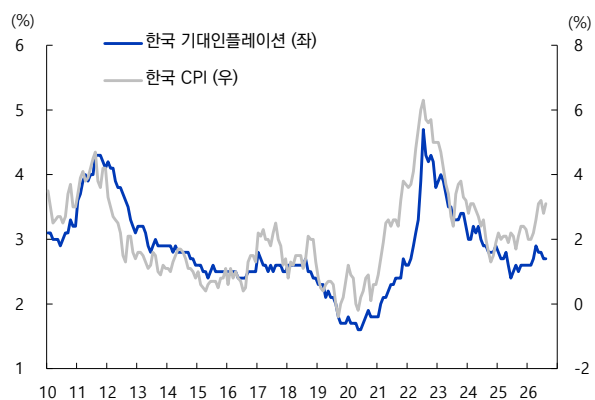
자료: CPB,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정부, 820.9 조원 규모의 2027년 예산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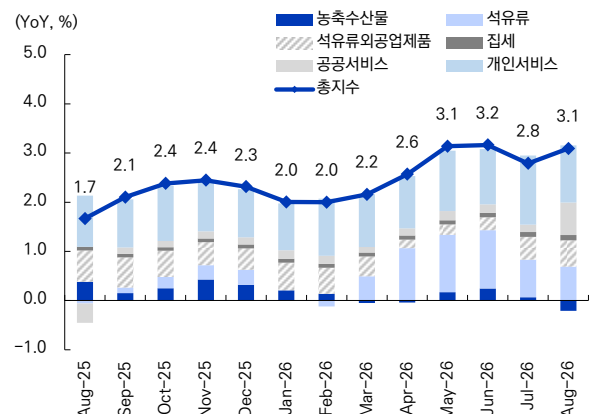
자료: 기획예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5] 한국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6]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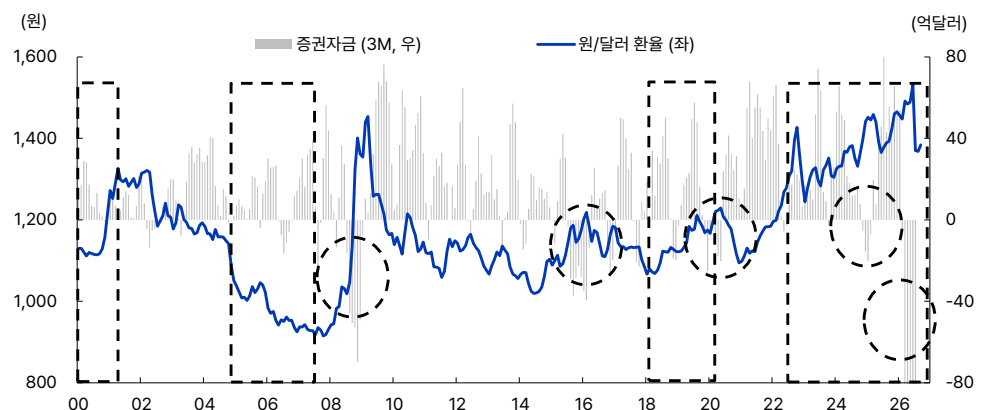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준은 9월 FOMC는 연방기금 목표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하고, 금리 점도표 등을 통해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보고서에서 필자는 미 연준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은행이 당장 추가 인상 시점을 앞당길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잭슨홀 심포지엄 참석 이후 신현송 한은 총재 역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이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으며, 국내 물가와 성장, 환율 및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감안하면 8월 금통위의 연속적인 금리인상 결정에는 연준의 9월 인상 가능성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예상 경로에 연준의 9월 인상과 더불어 연내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술한대로 연준이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도 다소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재차 확대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고, 이는 한국은행이 7~8월 선제적 금리인상을 통해 확보했던 환율 안정과 물가 기대 억제 효과를 일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의 연내 추가 긴축은 한국은행의 정책적 여유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도표 27]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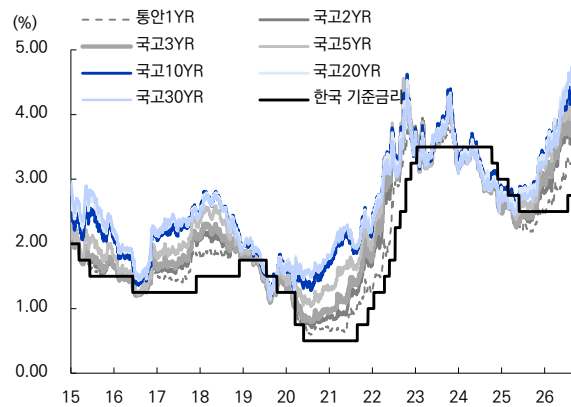
주: 박스형 점선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 원형 점선은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한 구간

투자전략: 높은 절대금리 매력과 여전한 변동성 부담

국내 채권시장은 중동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수급 부담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국고채 금리는 9월 들어 연중 고점을 경신하며 3년물 금리가 4.1%, 10년물 금리가 4.6% 수준까지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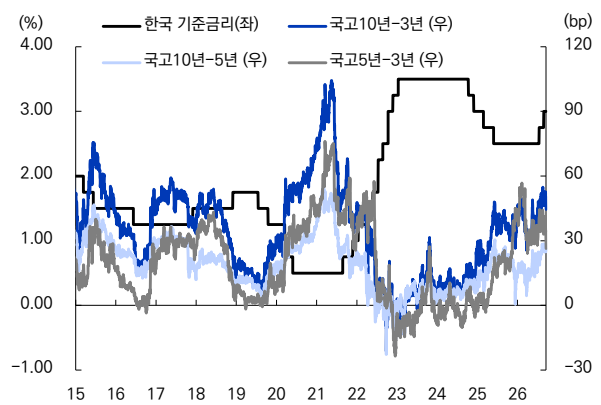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높은 절대금리 수준을 활용한 캐리(Carry)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전술한대로 대내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중동 리스크와 수급 경계감까지 지속되고 있어 채권 투자심리가 단기간 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도표 28]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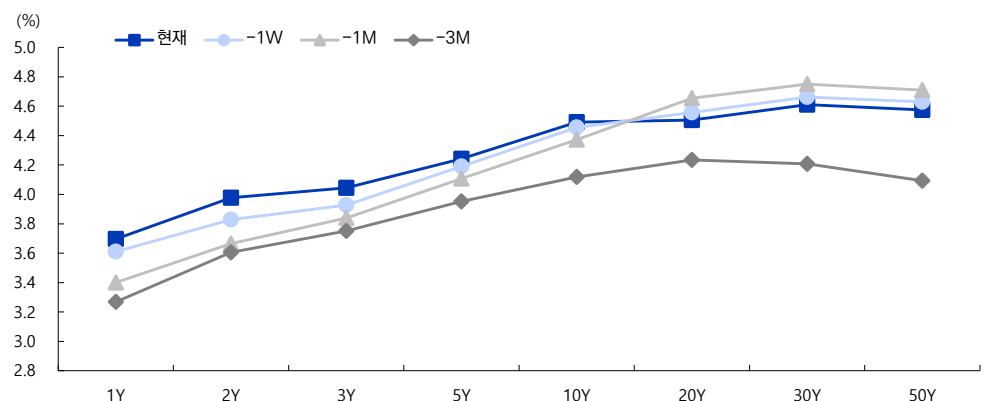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9]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0] 한국 기간별 일드 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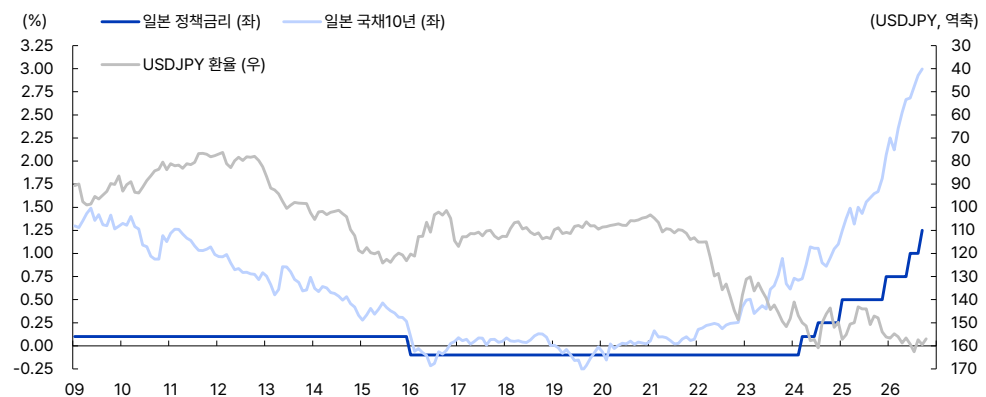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Issue Check: BOJ,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이어갈 전망

9월 BOJ는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했다. (아사다 도이치로, 사토 아야노 금리인상 반대) 우에다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설 위험이 커졌다고 통화정책의 국면이 달라졌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점과 폭에 대해서는 정해진 구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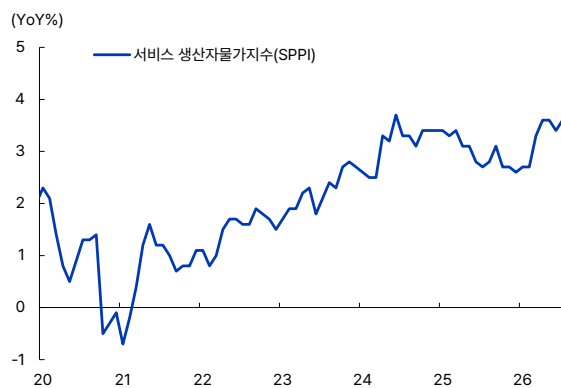
당사는 BOJ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2%) 수준에 근접하는 등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고, 엔화 약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어 BOJ가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한다. 전술한대로 우에다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신중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10월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 보다는 물가, 환율 흐름을 좀 더 지켜본 이후 12월 회의에서 추가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도표 31] BOJ 통화정책과 일본 국채금리, 환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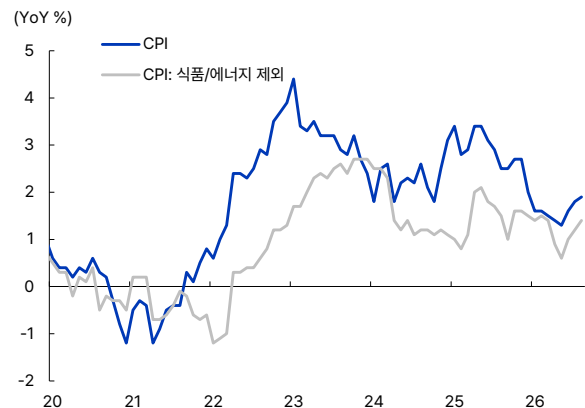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2] 일본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3] 일본 도쿄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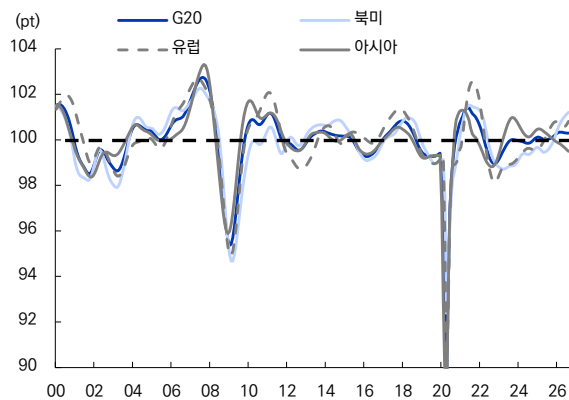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Chart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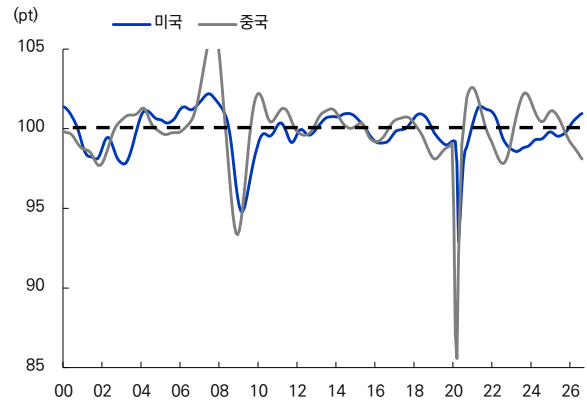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도표 34] 지역별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5] 미국, 중국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6] 미국 ISM 제조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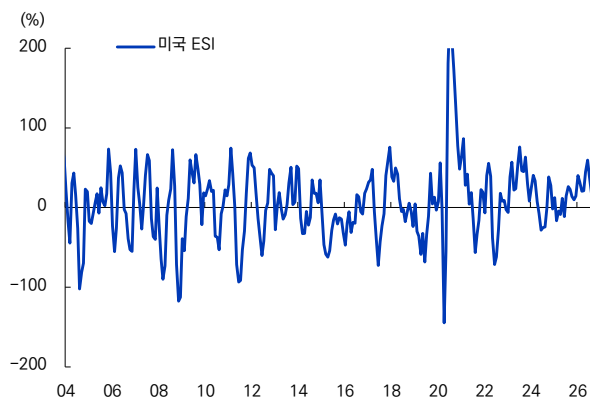
자료: ISM,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7] 유로존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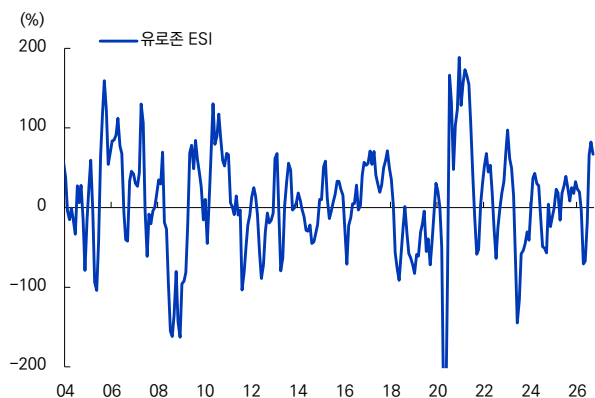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8] 미국 E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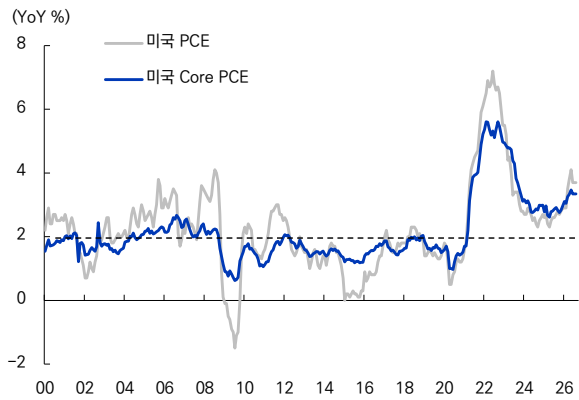
자료: Cit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9] 유럽 E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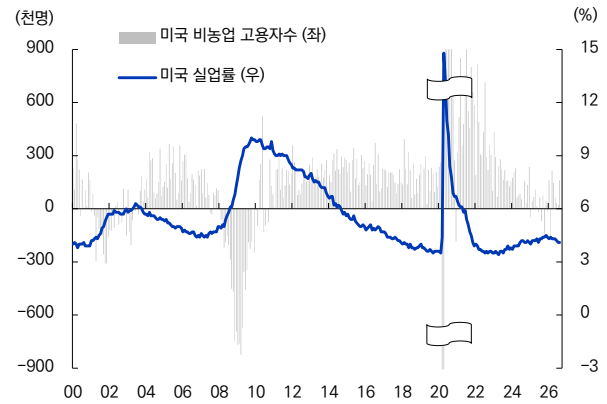
자료: Citi,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0] 미국 PCE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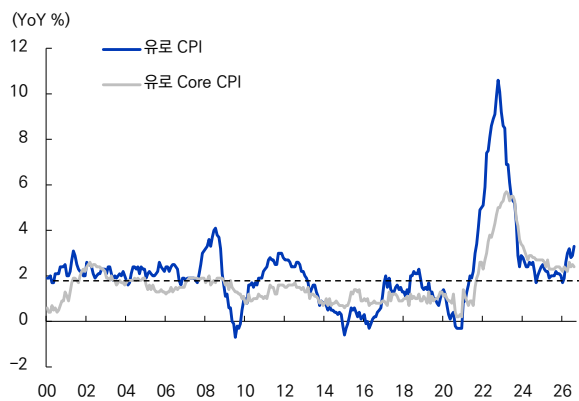
자료: BE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1]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및 실업률



자료: 미국 노동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2]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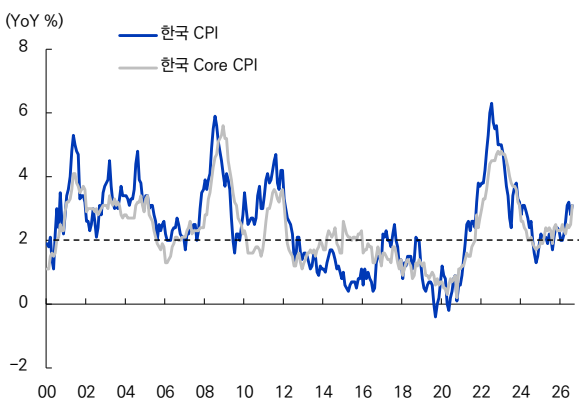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3] 유로존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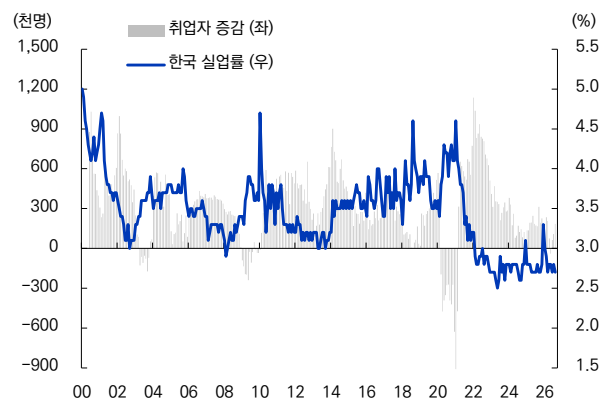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4]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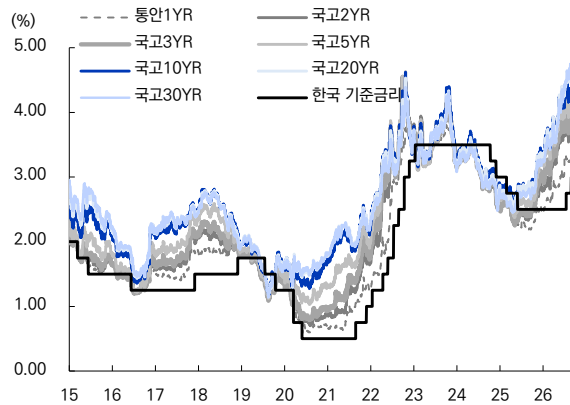
[도표 45] 한국 실업률 및 취업자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채권금리

[도표 46] 한국 기준금리 및 국고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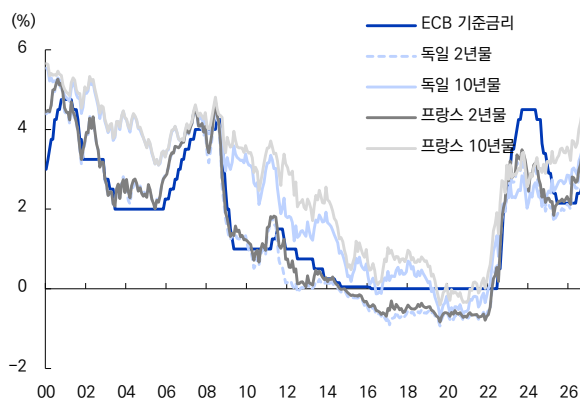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7] 미국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8] ECB 기준금리 및 독일, 프랑스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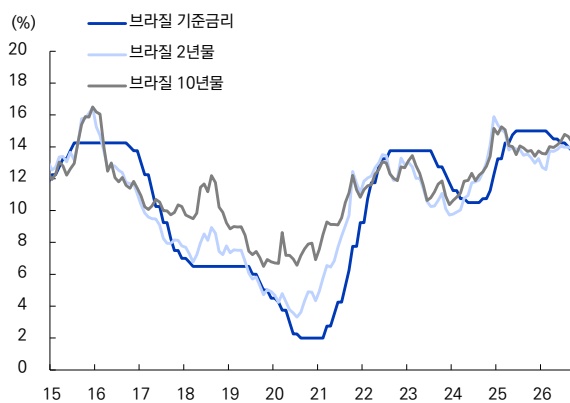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9] 일본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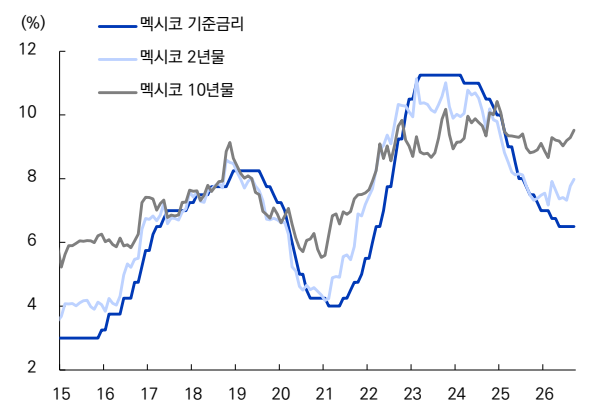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0] 브라질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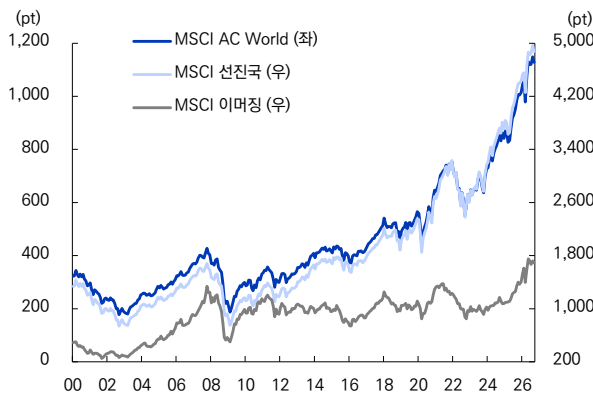
[도표 51] 멕시코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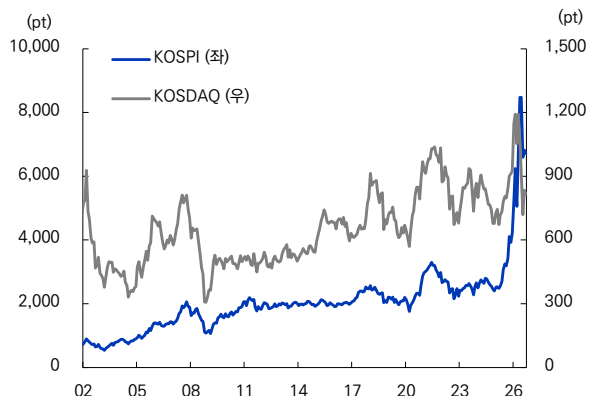
국내외 주가지수

[도표 52] MSCI AC World, 선진국, 이머징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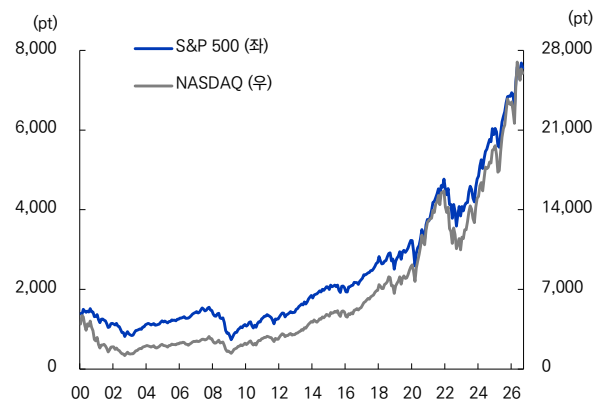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3] KOSPI, KOSDAQ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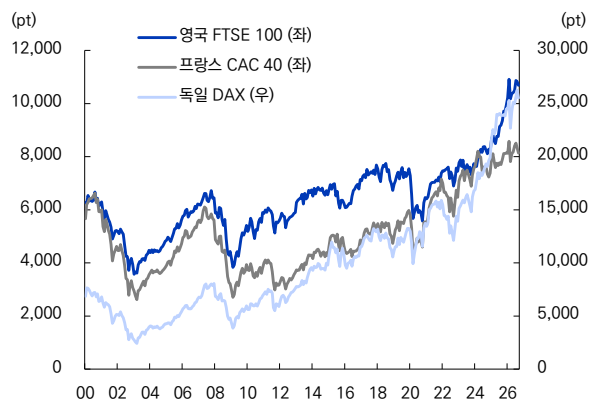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4] 미국 S&P 500, NASDAQ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5] 영국 FTSE 100, 독일 DAX, 프랑스 CAC 40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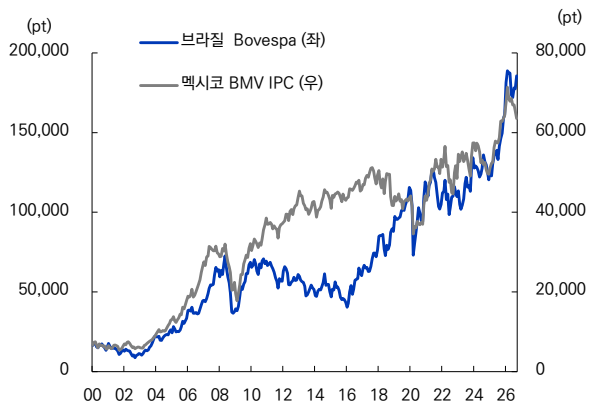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6] 일본 NIKKEI 225, 중국 상해종합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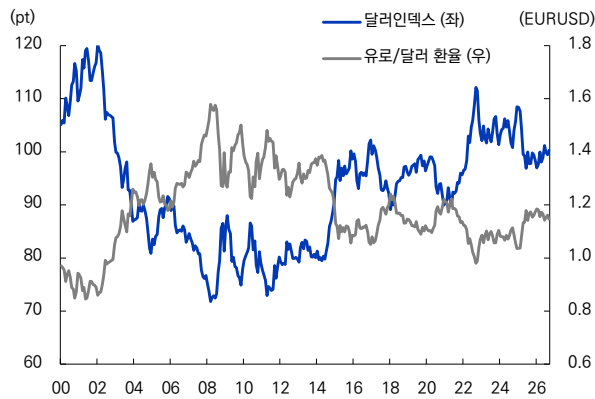
[도표 57] 브라질 BOVESPA, 멕시코 BMV IPC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상품 및 환율 동향

[도표 58] 달러인덱스 및 유로/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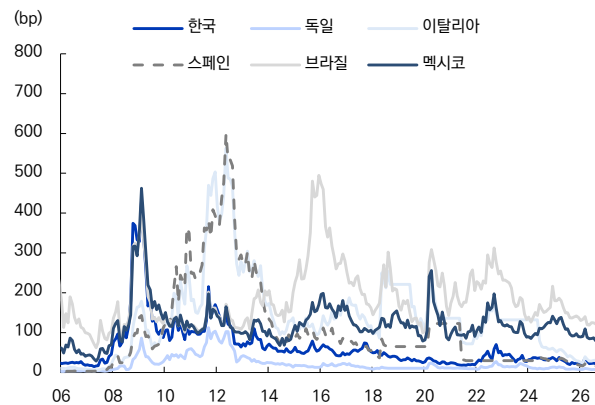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9]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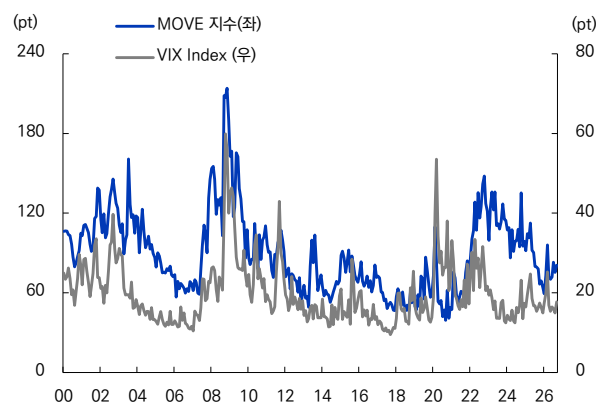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0] 글로벌 CDS 프리미엄(5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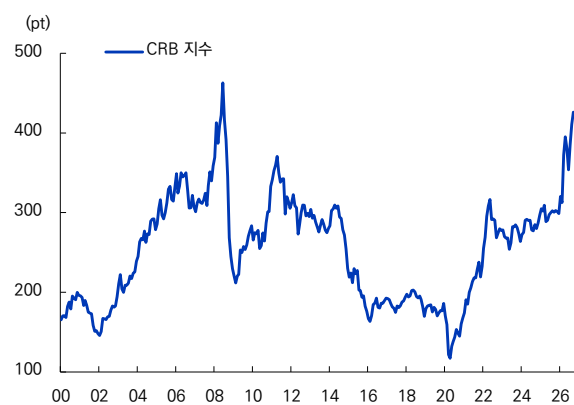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1] MOVE 및 VIX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2] CRB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3] 평균유가 및 금 가격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평균유가는 WTI, Brent, Dubai 유가 평균

10 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	2
			통안계정 만기 1000억 만기 1조 6197억	통안만기 3조 7000억 만기 6조 1754억
			美 8월 건설지출 韓 9월 무역수지 中 9월 제조업 PMI 中 9월 RatingDog 제조업 PMI EU 8월 실업률	美 9월 비농업 고용 美 9월 실업률 美 8월 제조업수주 韓 9월 CPI EU 9월 소비자물가(HICP) 잠정치
5	6	7	8	9
만기 4100억 中 9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 EU 8월 생산자물가 EU 9월 구매관리자 지수	통안만기 6200억 만기 1조 8843억 美 8월 수출입 美 8월 무역수지 EU 8월 PPI EU 8월 소매판매	만기 1조 8449억 지준일	통안계정 만기 1000억 만기 4조 6622억 국채만기 8410억 美 8월 도매재고 韓 8월 경상수지	만기 5970억 中 9월 무역수지 中 9월 CPI 中 9월 PPI
12	13	14	15	16
만기 2조 5140억	통안만기 6000억 만기 3조 2777억 美 9월 기준주택판매	만기 1조 9192억 美 9월 CPI 中 9월 CPI 中 9월 PPI 中 9월 무역수지	통안계정 만기 1000억 만기 3조 8720억 美 9월 PPI 美 9월 소매판매 韓 8월 통화 및 유동성 EU 8월 산업생산	만기 3조 7099억 美 9월 수출입물가 美 9월 산업생산 韓 9월 실업률 韓 9월 수출입물가지수 EU 8월 무역수지 EU 9월 소비자물가(HICP)
19	20	21	22	23
中 9월 산업생산 中 9월 소매판매 中 9월 고정자산투자 中 3Q GDP	美 9월 신규주택착공건수 美 9월 건축허가건수 EU 8월 경상수지	韓 9월 PPI	韓 금통위	EU 10월 구매관리자 지수(잠정)
26	27	28	29	30
美 8월 S&P/CS 주택가격지수 美 9월 내구재수주 美 9월 신규주택판매 美 10월 CB 소비자신뢰지수 韓 10월 소비자동향지수 韓 3Q GDP	美 FOMC 캐나다 BOC 통화정책 회의 뉴질랜드 RBNZ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韓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韓 10월 기업 CSI&ESI 美 9월 PCE 美 3Q GDP	日 BOJ 통화정책회의 美 10월 사카고 PMI 지수 韓 9월 산업활동동향 EU 3Q GDP	

자료: Bloomberg, 본드웹, 연합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현지시간 기준

|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